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사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로스쿨 SJD과정 법역사학전공
강인실

(11월 18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국기와 배너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https://www.mprnews.org/story/2017/11/19/zimbabwes-mugabe-resigning-after-37-years-official)

1. 들어가며

지난 11월 21일, 짐바브웨의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가 자진 사임했다. 37년간의 긴 통치가 막을 내렸다. 그는 1980년 짐바브웨의 독립과 함께 정권을 잡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 없이 연임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하였고[1], 2002년에는 언론

1) 2013년 전까지 대통령의 임기는 6년, 연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2013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는 5년, 연임은 1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직대통령에게는 신 헌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2013년 무가베가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었던 셈이다.

사 등록제와 방송인 자격제 등을 규정한 언론법을 통과시키도 했다. 짐바브웨의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계속되어 왔던 무가베의 철권통치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아내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권력을 승계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실상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11월 6일, 무가베와 그의 아내는 유력한 권력승계자였던 부통령 에머슨 음난가그와(Emerson Mnangagwa)를 경질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었던 군부와 퇴역군인들이 무가베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11월 15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군부는 수도 하라레를 점령했고 무가베를 가택연금하였다. 이어, 무가베가 40여년을 이끌었던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ZANU-PF)도 경질된 부통령 음난가그와를 당대표로 추대하고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가택연금 중에도 퇴진을 거부하던 무가베는 탄핵절차가 가속화되자 결국 대통령직 사임의사를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다.

2. 짐바브웨 헌법상 대통령 탄핵규정

짐바브웨 헌법 제97조 1항에 규정된 대통령 또는 부통령 탄핵(removal) 사유는 총 4가지로 a) 중대한 불법행위(serious misconduct), b) 헌법의 준수·유지·수호에 실패함(failure to obey, uphold or defend this Constitution), c) 고의적 헌법 위배행위(wilful violation of this Constitution), d)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대통령직 수행 불능 상태(inability to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office because of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이다.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짐바브웨에서는 전체 의원의 절반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으며 상·하원이 고루 섞인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소추안을 검토(investigate)한 후, 최종적으로 2/3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제97조 2항).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은 부정부패척결의 실패(failing to address corruption), 15년간의 경제위기(a 15-year economic tailspin), 아내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 위임(allowing his wife

to assume hi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근거 없는 쿠데타 모의 혐의 제기(accusing deputies of plotting coups without evidence) 등을 탄핵사유로 꼽았다.[2] 무가베의 사임당시 탄핵소추안은 위원회의 검토단계를 거치는 중이었다.

3. 부통령 에머슨 음난가그와의 경질과 군부의 수도 히라레 점령에 대한 위법성 판단

11월 24일, 짐바브웨 법원(high court)[3]은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과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을 내놓았다. 먼저 에머슨 음난가그와가 임시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인 11월 23일에 제기한 경질무효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바로 다음날 음난가그와의 임시대통령 취임 불과 몇 시간 전에, 11월 6일 발생한 대통령 무가베의 부통령 경질은 무효(null and void)이며 따라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4]

또한 군부가 수도 하라레를 점령하고 당시 대통령 무가베를 가택연금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는 적법하며 따라서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기능을 승계받으려는 주변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가 개입한 행위는 헌법 제212조에 따라 헌법상 허용가능하고 적법하다"[5]고 밝혔다. 짐바브웨 헌법 제212조에 따르면 짐바브웨 군대는 짐바브웨와 그 국민, 국가안보, 국익 그리고 영토보전의 의무를 진다.

---

2) Roland Oliphant & Peta Thornycroft, Robert Mugabe to face impeachment by Wednesday as 'source of instability,' The Telegraph, November 20, 2017, http://www.telegraph.co.uk/news/2017/11/20/zimbabwes-robert-mugabe-has-drafted-resignation-letter-immunity/ (last visited Dec 3, 2017).

3) 짐바브웨의 court system은 상위법원부터, Constitutional Court - Supreme Court - High Court - Magistrate District Court - Community Court - Village Court 순으로 이루어져있다.

4) "The dismissal of the applicant by Robert Gabriel Mugabe, the then President of Zimbabwe, from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of Zimbabwe on November 6, 2017 is null and void.." (Emmerson Dambudzo Mnangagwa vs. Act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Zimbabwe and Another HC 10940/17).

5) "... The action of the Defense Forces in intervening to stop the take-over of first respondent's constitutional functions by those around him are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and lawful in terms of Section 212 of the Constitution of Zimbabwe" (Joseph Evurath Sibanda and Another v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Zimbabwe, Robert Gabriel Mugabe N.O. and Three Others HC 10820/17).

4. 나가며 - 대통령 사임에 대한 짐바브웨 인권변호사와의 인터뷰

다음은 대통령 사임에 따른 짐바브웨 현지의 반응과 사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진 짐바브웨 인권변호사 데이빗 호피시(David Hofisi)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내년에 있을 짐바브웨 대선과 민주화를 위한 개인적 전망까지 들어보았다.

본인소개를 부탁한다

- 이름은 데이빗 호피시이다. Zimbabwe Lawyers for Human Rights에서 Senior Projects Lawyer로 7년간 일했다.

무가베는 어떻게 첫 수상이 되었는가

- 당시 그의 정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독립투사였고 짐바브웨 독립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1980년에 그는 국가를 식민지배로부터 건져낸 유명한 인물이었다.

37년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텐데 어떠한가

- 37년간 짐바브웨 헌법은 19차례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 개정된 2013년 헌법은 1980년 독립정부가 세워질 당시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모든 제·개정이 권력 유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그랬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짐바브웨는 수상(prime minister)이 이끄는 의원내각제 국가였지만 7년 후,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 and balance)가 깨어지고 한 사람의 강한 행정권력이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헌법은 여론을 잠재우는 법적 수단(statutory instrument)이었다. 법률의 경우에도 식민지 시절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용되었다. 영구집권에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법은 권력을 유지하고, 선거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가 동원된 적도 있는가?
- 경찰력의 동원이 우선적이다. 군인들이 동원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군부의 수도 장악이 (무가베 사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이유가 그것이다.

사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 전 부통령 음난가그와의 경질 이전에도 무가베와 그의 아내 그레이스는 부통령 및 군부와 대립하고 있었다. 음난가그와가 경질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군 최고사령관(Chief of Defense)도 곧 체포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군대가 먼저 수도를 점령한 것이다. 수도는 전략적인 지역이었다. 군부는 무가베 정권에 반대하는 교육 수준이 높고 젊은 도시의 중산층들이 지지를 보내줄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외신보도를 살펴보면 현 임시대통령 에머슨 음난가그와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 그를 무가베 못지 않은 독재자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어느 쪽이 사실인가.
-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모두 맞다. 우선 그는 절대로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다. 그는 무가베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였고 독립전쟁 참전투사들로 구성된 정당을 이끌어왔다. 무가베 정권 하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무가베를 몰아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그는 분명히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년 대선에 대한 전망을 해달라.
- 우리는 다당제 국가이지만 사실상 무가베와 음난가그와가 이끌어 온 보수 성향의 여당(ZANU-PF, 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 Patriotic Fron)과 모건 창기라이(Morgan Richard Tsvangirai)가 이끄는 진보 성향의 민주변화운동(MDC, 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모건 창기라이와 그 당은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계층과 학생 등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모건 창기라이는 현재 암투병 중이며 이번 사건으로 군부가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야당이 집권하게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짐바브웨의 민주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이 질문에는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법원이 공평하고 정치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상황에 오염되지 않는 사법부의 영역이 보존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언론이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짐바브웨에는 오직 하나의 허가된 방송국이 있다. 1999년 민주변화운동(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이 창당된 후에는 언론탄압이 더욱 심해져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문사와 방송국은 문을 닫아야 했다. 많은 언론인들이 체포되고 때로 납치되었다. SNS의 사용도 금지되어 있다. 세번째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정치가들이나 군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민주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금의 변화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어느 면으로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과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